

집중탐구



폭염·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

농식품부, 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적 대책 추진

◎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, '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폭염일수가 평년(10.4일)보다 다소 많을 것'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'2019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'을 수립하고, 농촌진흥청, 지자체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.

◎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5일 앞당겨서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.

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팀*으로 구성되며,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하여 기상상황을 상시점검하고,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 실·국 및 지자체, 유관기관·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,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.

*5개팀 : 재해총괄, 초동대응, 식량·원에, 축산, 수리시설

◎ 농식품부는 금년 여름철 재해에 대비 지난 3~4월에 지자체 재해담당 공무원(1,300명) 대상으로 재해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,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·도, 시·군, 읍·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'재해대응 비상연락망(약 2천명)'을 정비하여 실시간 화상통화가 가능토록 핫라인을 구축하였다.

◎ 아울러,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*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컸고 올해 이미 수차례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던 것을 감안, 사전대응을 통한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.

*폭염일수 : ('15) 10.1일 → ('16) 22.4 → ('17) 14.4 → ('18) 31.4

*가축피해 : ('15) 2,666천마리 → ('16) 6,144 → ('17) 7,260 → ('18) 9,07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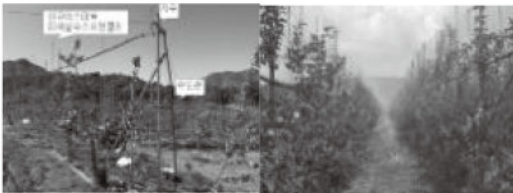
*농작물피해 : ('16) 16,667ha → ('17) 없음 → ('18) 22,509

◎ 폭염에 취약한 노재채소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(배추, 무, 호박, 당근, 파)하고 과일 햇볕데임 피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폭염 보장특약(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)을 주계약으로 전환(19.2월)하였다.

◎ 전국단위 인삼농가 현장 설명회(5.20~23, 500농가), 축사유형별 가금농가 컨설팅(6.11~24, 330농가) 등 통해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, 과수·축사 시설현대화 사업*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·송풍팬·온습도 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.

* 과수 : 454억원 (국고20 : 지방비30 : 융자30 : 자부담20) /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주체에 출하하는 경영체

* 축사 : 1,787억원 (융자80 : 자부담20) / 축산업 등록·허가받아 사육중인 경영체



< 미세살수장치 시설 >



< 송풍팬 >

◎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(주의보, 경보)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*도 실시한다.

* (18) 상담사 10명, 도우미 24천명, 대상자 51천명 → (19) 상담사 20, 도우미 50천, 대상자 100천

* 경찰청과 협력으로 112, 119 긴급출동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

◎ 또한, 매년 장마·호우·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상시화 되고 있고 올해도 '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증가와 태풍 1~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'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대비 지난 4월 15~19일 행안부 및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, 비닐하우스,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. 또한 5~10월중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,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*에 대하여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금년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0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우기(雨期) 이전(6월중)에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.

* 농업용시설 : 저수지 17천개소, 양·배수장 8천, 취입보 18천, 집수암거 3천

◎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진청, 지자체 등을 통해 농업인, 품목단체·협회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·시설 관리요령 리플릿(4종, 8만부)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,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SMS문자 전송하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.

* 주간·월간 기상예보와 예상재해별 농작물 관리요령 및 기상특보 발령시 대응요령, 재해예방 관리기술 정보 제공

◎ 피해발생 시 작물별·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·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‘현장기술지원단(30개팀, 3인1팀)’을 현장에 파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한다.

◎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,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이번 여름철 대책에 따라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.

◎ 과수·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폭염예방 시설 설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.

* 보험 판매중인 품목 : 고랭지배추(6.21까지), 고랭지무(6.28), 고랭지감자(6.7), 고구마(6.14), 옥수수(6.21), 벼(6.28), 참다래(7.5),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2종(11.29), 가축 16종 및 축사(12.31)

참고로, 2018년에 297천 농가가 1,727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, 태풍·폭염 등 피해를 입은 91천 농가가 8,23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.

2018년도 보험금 지급사례

사례1) 전남 해남에서 벼 197,863㎡를 경작하는 김○○씨는 보험료 814만원 중에서 37만원의 보험료(농가부담액)를 내고 가입금액 19,766만원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
 ⇒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4,300만원을 지급받음

사례2) 경북 군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이○○씨는 보험료 1,478만원 중에서 656만원의 보험료(농가부담액)를 내고 돼지 2,300두와 축사 2,667㎡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
 ⇒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로 보험금 9,597만원을 지급받음

요약

2019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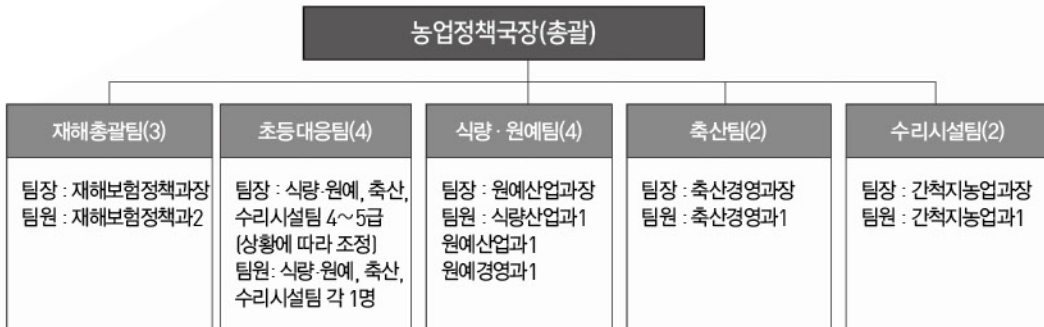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,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풍수해(風水害), 폭염(暴炎) 등을 대상으로 '19.6.10~10.15 기간 중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

1 여름철 기상전망

- ◎ (강수량) 평균 강수량은 710.7mm(30년 평균)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,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
- ◎ (태 풍) 7~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(1~3개 한반도 영향)
- ◎ (기 온) 평균 기온은 23.6℃(30년 평균)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
- ◎ (폭 염) 평균 폭염 일수는 10.5일(30년 평균) 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전망

2 재해대책 추진계획

- ◎ '19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 수립·시달 (6. 5한)
- ◎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(농식품부 재난상황실, '19.6.10~10.15)
 - 구성 :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팀 16명(+α)으로 구성
 - 비상체제 전환 시 상황관리를 위해 해당품목 국장(식량, 유통, 축산) 포함



○근무체제 : 【평시】 평상근무 → 【위기경보 발령 시】 비상근무

- ▶ 비상근무 실시 : (09~18시) 5개팀 전원, (18~익일 09시) 국장, 팀장, 각팀별1
- ▶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근무자, 합동조사단 파견
- ▶ 지자체 및 유관기관(농진청, 농협, 농어촌공사 등)도 비상근무 체계 유지

◎ 재해예방 정보 제공 및 피해복구 기술지원

- 농업인, 품목단체·협회 등에 재해예방 정보 제공(리후릿 4종 8만부)
- 기상특보(주의보, 경보)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
* 품목별 농업인 대응요령(164만명, 농진청), 농업인 안전행동요령(230만명, 지자체)
- 농작물, 가축 피해가 심한지역에 농진청·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‘현장기술지원단’을 현장에 파견 긴급복구 기술지원(농진청, 30개팀)
- 저수지,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피해 발생시 ‘기술지원단119센터’의 전문가 현장 파견 및 기술지원(농어촌공사, 802명)

◎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

- 농진청,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 도모
- 농어촌공사, 농협, 지역 군부대 등과 응급복구 인력·장비 지원체계 마련
- 농경지 침수대비 배수장 상시 가동체제 유지(~10월, 농어촌공사)
- 대규모 재해 시 상황공조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관 파견

◎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

- 재해보험 가입농가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(추정보험금의 50% 선지급)
-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
- 지자체의 복구계획 접수 후 15일 이내 확정, 재해대책비 예산 지원 여름철 재해 대책 홍보
- 긴급 상황회의 시, 장·차관 등 현장방문 시, 피해 복구비 지원 등 보도자료 배포(수시)
- 재해 유형별 사전대비, 발생시, 사후관리 등 시기별 행동요령을 이미지 콘텐츠(카드뉴스 2종, 한컷뉴스 6)로 온라인 홍보(6~9월, 수시)
- 폭염 3종, 풍수해(태풍·집중호우) 1종 등 리플릿 4종 8만부 제작

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

품 목		가입기간	사업 지역
신규 품목	배추	4.29~6.21, 9.16~9.27	[고령지] [강원]정선·삼척·태백·강릉·평창, [울릉] [전남]해남
	무	4.29~6.28, 9.16~9.27	[고령지] [강원]홍천·정선·평창·강릉, [울릉] [제주]제주·서귀포
	단호박	4.8~5.24	[경기]연천
	당근	7.15~8.9	[제주]제주·서귀포
	파	4.29~5.31, 7.15~8.9	[대파] [전남]진도·신안, [쪽파·실파] [충남]아산, [전남]보성
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	2.25~3.22	전 국	
원예 시설	농업용 시설물	2.25~11.29	전 국
	시설작물*		
버섯	표고, 느타리, 양송이, 새송이	2.25~11.29, [표고 원목재배: 6.3~7.26]	전 국
	버	4.22~6.28	전 국
밤	4.8~5.3	전 국	
대추	4.8~5.3	전 국	
감귤	4.8~5.3	전 국	
고추	4.8~5.24	전 국	
고구마	4.29~6.14	전 국	
옥수수	4.29~6.21	전 국	
감자	4.8~5.7, 5.13~6.7, 7.15~9.6t	[봄감자] 경북, 충남, [고령지감자] 강원도, [가을감자] 전 국	
참다래	6.3~7.5	부산·광주·울산·전남·전북·경남·제주	
콩	6.10~7.19	전 국	
메밀	7.15~8.30	전남·제주	
브로콜리	7.15~8.30	[제주]제주·서귀포	
양배추	7.15~8.30	[제주]제주·서귀포	
마늘	10.7~11.1[난지], 10.28~11.29[한지]	전 국	
차	10.7~11.9	[전남]보성·광양·구례, [경남]하동	
밀	10.14~11.29	[충남]천안·예산, [전북]익산·김제·부안 [전남]해남·보성·함평·영광, [경남]사천·합천, [광주광역시]	
인삼	10.7~11.29	전 국	
양파	10.28~11.29	전 국	
오디	11.4~11.29	[전북]부안·고창·정읍, [전남]영광·장성, [경북]상주·안동	
매실	11.4~11.29	전 국	
복분자	11.4~11.29	[전북]고창·정읍·순창, [전남]함평·담양·장성	
자두	11.4~11.29	전 국	
포도	11.4~11.29	전 국	
복숭아	11.4~11.29	전 국	
오미자	11.4~11.29	[충북]단양, [전북]장수, [경남]거창, [경북]문경·상주·예천, [강원]인제	
무화과	11.4~11.29	[전남]영암·신안·목포·무안·해남	
유자	11.11~12.20	[전남]고흥·완도·진도, [경남]거제·남해·통영	

* 시설작물(22종) : 수박·딸기·오이·토마토·참외·풋고추·호박·국화·장미·파프리카·멜론·부추·상추·시금치·배추·가지·파·무·백합·캐네이션·미나리·썩갓